

[ 사회 ]

■ 조선대 새 강좌·기구 발족 눈길 끄네

“남도 음식문화 1번지로” “제2의 황우석사태 막아라”

정책대학원, 지역 첫 '외식문화 CEO 과정'

국내 첫 '연구윤리정보센터' 개설

“외식산업 운영,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조선대 정책대학원(원장 이계만 행정복지학부 교수)이 음식문화 발전과 외식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 ‘외식문화 CEO 과정’을 개설한다.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등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 비슷한 과정을 운영중인 하지만 지역 대학으로는 최초다.

이 과정은 외식산업 경영자들에게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광주·전남이 국내 음식문화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는 4월 29일부터 8월12일까지 1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진행된다. 선착순 50명을 4월17일까지 모집하며, 수강료는 10만 원이다.

개설 강좌는 ▲외식산업 경영전략(정인태 (주)이티엔제우스 회장) ▲감성 마케팅(홍성태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식품산업의 현황

과 전망(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디지털 시대의 사업전략(이금룡 코리아디지털경제연구소장) ▲고객구 변화에 따른 성공 대응 전략(오진권 (주)이야기가 있는 외식공간 대표이사) ▲외식 프랜차이즈 전략(김태희 경희대 외식산업학과 교수) ▲메뉴관리와 원가 절감(진양호 경기대 관광과 교수) 등이다.

또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의 자세(이영권 세계전략연구소장) ▲외식산업 가를 위한 통계 네비게이터 활용 방안(장치성 통계청 지리정보과 과장) ▲외식산업의 업종 다각화 혁신 사례(지승룡 민들레영도 대표) ▲2009년 경기전망과 투자전략(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공중음식의 세계화(한복려 공중음식연구소장) ▲외식산업과 HACCP 시스템(강영재 강 푸드스터디 컨설팅 대표) ▲세계의 술 문화(삼재학 (주)레트 컴퓨터 대표) 등의 강의도 마련된다. 문의 062-230-6671~3.

“제2의 황우석 사태를 막아라.” 연구자들의 연구 윤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조선대학교에 연구윤리정보센터(센터장 조은희 교수·이하 센터)가 개설됐다.

이 센터는 개별 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과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자들의 자발적 실천을 진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 교수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연구원의 59%가 모든 연구원에게 연구윤리 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대답하는 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식사회에서 윤리적 책무가 강조되는 추세다.

센터에서 활동하게 될 운영위원은 센터장인 조은희(조선대 생물학) 교수를 비롯, 이상욱(한양대 철학과)·이인재(서울고대 윤리교육과)·손화철(한동대 교양교육원)·윤태웅(고려대 전기전자전공과) 교수 등이다. 이들은 ▲국내 연구윤리 현황 파악 및 의제

설정 ▲연구윤리 관련 자료 수집 및 개발 ▲온라인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 ▲연구 인력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센터는 지난 19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한양대 연구윤리 전문가 간담회(3월25일), 가천대 ‘표절과 올바른 인용’ 주제 강의(3월28일),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원 ‘생명윤리특강’, 숙명여대 생명과학부 대학원 ‘연구윤리특강’(이상 1학기 중)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은희 센터장은 “30명 이상 규모의 전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연구 중 부딪치게 되는 윤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개토론은 물론, 비공개 상담 창구도 열어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30-7370.

이번엔 미국산 채소에 ‘생쥐’

식약청 경위 조사

미국산 유기농 냉동야채 제품에서 생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경위 조사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야채볶음 등의 재료로 쓰이는 냉동 수입식품 ‘유기농 야채믹스 베지터블’ 제품(제조사 : 미국 컬럼비아 푸드 Columbia Foods, Inc)에서 생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이물의 종류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코리아에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4명이 코스트코코리아에 불만사항을 접수했으며 코스트코코리아는 26

일 식약청에 자진 신고했다.

식약청은 현장조사에서 해당 제품을 확보했으며, 확인 결과 길이 4cm 정도의 생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수입업체인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지난 5일 수입된 것으로 유통기한은 2009년 6월 19일까지로 표기돼 있으며 국내에는 코스트코코리아 6개 매장에서만 판매 중이다. 문체의 제품과 같은 날짜에 수입된 제품은 서울 양재점, 양평점, 상봉점 및 대구점에서 판매됐다.

총수입량은 9천289Kg(4천92봉지)으로 이 가운데 16.8%가 판매됐으며 남은 7천727Kg(3천404봉지)는 즉시 압류·봉인 및 판매금지 조치됐고 조만간 폐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측

- ▲신우식(전 보성부군수)씨 막내 병호군 조기봉씨 장녀 영신양=29일(토) 오후 4시 안양 광춘 코아웨딩홀 10층 노블레스홀.
- ▲김강영씨 차남 조석(대주건설)군 강남원씨 장녀 혜경양=30일(일) 낮 1시, 메리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 ▲김창렬씨 차남 형진군 오정군씨 장녀 신영양=30일(일) 낮 12시50분 삼우지구 에블루스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 ▲표현규씨 장남 정주군 오유현씨 장녀 이경민양=30일(일) 낮 1시30분, 치평동성당.
- ▲김기주씨 별세 성철(광주대안경 대표·청암대 안경과 교수)·윤경·성희씨 부친상 임종철씨 부부상=발인 31일(월) 금호장례식장 201호. 227-4381.
- ▲최남식씨 별세 명수·명철·석희(건설업)·성미·성희씨 부친상 김해성(부동산중개업)·이상태(교사)씨 부부상=발인 29일(토) 송정장례식장 1호. 941-4400.
- ▲최계열씨 별세 삼철·병인·영숙·영자·영희씨 부친상 김중범·이창현·심삼근씨 부부상=발인 29일(토)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250-4409.
- ▲김태근(전 광주전남일보편집동조합 이사장)씨 별세 영식(약사)·선희(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선영·선숙·기영(의사)씨 부친상 이종호·박필성(사업)·정광희( )·박진혁(의사)씨 부부상=발인 30일(일) 영암 효병원 장례식장. 061-471-6887.
- ▲박복순씨 별세 이금식(한울교육 통영고성 지사장)·웅부(전 장성남중학교 교장)·판식(전 부림제생산부 초지반장)씨 모친상 송운학(가천의대 길병원 경영지원실장)씨 부모상=발인 30일(일) 광주 일곡병원 장례식장. 608-7046.
- ▲박윤자씨 별세 김익희(남도

대학생 등 7천명 ‘등록금 집회’

새 정부 첫 대규모... 경찰 1만4천명 '과잉 대응' 논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도심 집회 후 거리행진을 벌였지만 우려되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 전국 5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2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고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등록금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7천여명이 모여들어 “대학들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수백,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면서도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다”며 “정부는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을 투명화하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등을 통해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하 ▲상한제·후불제·차등책징제 도입 ▲학자금 한자·저리 대출 전면 확대 ▲투명한 등록금 제도 실시 ▲GDP대비 교육재정 7%·고등교육재정 1.1% 확보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듯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등 각당 대표들이 집회에 직접 참석, 18대 국회에서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시청~을지로2가~청계로~청계광장 2km 구간에서 도심행진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후 6시20분경 10여 분 동안 한화그룹 사옥 앞에서 발걸음을 자제하며 경찰차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곧바로 행진을 재개해 오후 7시 청계광장에 도착했고 불과 20여분만에 정리집회까지 마무리하는 신속성을 보였다.

경찰은 대규모 도심 집회에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이날 집회 인원의 두배에 가까운 1만4천여명의 전·외경을 배치해 현장에서는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예산 10%절감 철회”

광주시교육위 성명

광주시 교육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 예산의 10%를 절감해 영어교육 등을 확대하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 교육위는 “예산의 10%를 줄이다 보면 학생복지 예산과 각종 교육 시설비 등이 삭감될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소외 학생들을 위한 학생 생활비 지원 등 교육정책을 선택하는 시책은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대통령 취임사 내용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국제회의 유치 설명회’ (사)광주관광컨벤션투로(이사장 김윤석) 광주시 경제도시연구소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학 총장들과 주요 연구소 대표 등을 초청, ‘국제회의 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광주관광컨벤션투로는 국제회의 등 컨벤션 유치는 물론 관광산업 홍보 및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사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 ◇승진 (지방소방정) ▲대응구조과 장 이상연 (지방소방령) ▲소방행정과 최정진 ▲대응구조과 이철호 (지방소방령) ▲광산소방서 이거연 ▲동부소방서 위철 ▲남부소방서 정관목 (지방소방위) ▲북부소방서 구형식
- ◇전보 (지방소방정) ▲동부소방서장 장용주 (지방소방령) ▲대응구조과 채희권 ▲ 서하진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남윤 ▲ 구조구급과장 정상진 ▲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오승호 ▲광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원웅 (지방소방령) ▲소방학교 이동영 ▲서부소방서 김영일

**(第8期) 決算公告**

貸借對照表 (單位: 圓)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 산		부 채	
I. 유 동 자 산	403,200,847	I. 유 동 부 채	9,249,465,301
(1) 당 좌 자 산	393,096,494	1. 외 상 대 입 금	1,003,200
현금	2,813,962	미 지 급 금	661,859,347
예 수	340,913,995	미 수	16,944,503
의 상 대 입 금	32,107,000	부 가 세 외 수	77,246,870
미 수	5,597,800	단 기 차 입 금	800,000,000
미 지 급 금	11,663,737	단 기 차 입 비 용	125,616,201
(2) 제 사 자 산	10,103,353	유 지 설 비	7,500,000,000
유 지 설 비	2,718,353	미 지 급 비 인 세	86,795,180
장	7,386,100		
II. 비 유 동 자 산	11,599,453,409	II. 비 유 동 부 채	227,598,516
(1) 투 자 자 산	480,051,006	1. 미 지 급 금	158,000,000
관계회사 대 여	480,000,000	미 지 급 여 총 당 부 채	74,698,516
유 지 설 비	51,006		
(2) 유 형 고 정 자 산	11,063,777,353	부 채 총 계	9,477,063,817
토 지	1,051,597,008		
건 설	1,250,338,889	I. 자 본	499,480,000
구 조	44,256,703	1. 미 완 성 주 택	400,000,000
장	4,416,139,311	우 선 주 자 본	99,480,000
기 타	816,288,787		
기 타	460,996,620	II. 자 본 잉 여 금	1,896,016,100
장	429,874,363	주 식 발 행 초 과 금	1,896,016,100
차 량	119,435,656		
기 타	70,378,166	III. 미 리 잉 여 금	130,094,339
비	85,682,373	미 처 분 이익 잉 여 금	130,094,339
장	85,682,373	(당기순이익)	
기 타	452,478,459	당기: 2,280,308,856원	
장	449,509,583	전기: -641,264,143원	
기 타	4,007,231,471		
기 타	23,690,326		
기 타	34,690,326		
기 타	20,934,724		
기 타	20,804,724		
기 타	130,000		
자 산 총 계	12,002,654,25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2,002,654,256

위와 같이 공표함. 2008년 3월 29일

**주식회사 담양골프랜드**  
대표이사 김철준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8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회원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종대

**(제5기) 결산공고**

대 차 대 조 표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유 동 자 산	54,299,173,184	I. 유 동 부 채	55,631,256,823
(1) 당 좌 자 산	27,602,515,746	1. 외 상 대 입 금	247,401,00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042,051	2. 단 기 차 입 금	55,222,000,000
2. 단 기 예 수	1,196,198,025	3. 미 지 급 비 용	150,198,123
3. 단 기 대 여	23,952,298,194	4. 미 지 급 금	11,000,000
4. 미 수	51,713,890	5. 예 수	657,700
5. 미 수 수 익	2,212,998,826	6. 이 연 법 인 채 부 채	28,201,554
6. 선 급	180,000,000	II. 고 정 부 채	14,604,680
7. 선 급 법 인 세	7,276,760	1. 퇴 직 여 총 당 부 채	14,604,680
(2) 제 고 자 산	26,696,657,438	부 채 총 계	55,645,861,503
1. 미 완 성 주 택	3,162,370,003		
2. 용 지	23,534,287,435	I. 자 본	1,212,000,000
		1. 자 본	1,212,000,000
II. 고 정 자 산	11,083,419	II. 미 리 잉 여 금	(2,547,604,900)
(1) 투 자 자 산	11,083,419	1. 처 분 전 이 회 결 손 금	(2,547,604,900)
1. 이 연 법 인 세 자 산	1,083,419	(당기순손실: 3,987,375,982)	
2. 예 처 영 업 보 증 금	10,000,000		
자 산 총 계	54,310,256,603	자 본 총 계	(1,335,604,900)

위와 같이 공표함. 2008년 3월 29일

**주식회사 엔 디 엠**  
대표이사 고재원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5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윤성복

**(第5期) 決算公告**

貸借對照表 (單位: 圓)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 산		부 채	
I. 유 동 자 산	7,504,402,134	I. 유 동 부 채	3,110,447,280
(1) 당 좌 자 산	3,518,213,879	1. 미 지 급 금	553,137,575
1. 현금및현금성자산	1,951,130,016	미 지 급 비	400,000,000
2. 예 수	1,688,496,764	미 지 급 비	57,098,000
3. 단 기 예 수	5,300,000	4. 미 지 급 비	208,787,602
4. 미 지 급 비	2,134,875,620	미 지 급 비	48,906,910
5. 미 지 급 비	21,914,461	6. 예 수	53,165,428
6. 미 지 급 비	870,650	7. 예 수	623,153,200
7. 선 급	66,479,451	8. 예 수	300,000,000
8. 선 급	35,797,888	9. 사 차	105,574,435
9. 부 가 세 대 입 금	28,201,554	10. 환 인	239,244,755
10. 선 급	7,968,126	II. 비 유 동 부 채	5,673,678,051
(2) 제 고 자 산	3,986,188,255	1. 미 지 급 금	968,099,000
1. 선 급	988,795,710	2. 미 지 급 금	437,213,208
2. 예 수	621,055,864	3. 선 급	4,000,000,000
3. 원 채	2,055,786,272	4. 사 차	536,590,129
4. 사 차	19,610,409	5. 환 인	2,589,534,286
자 산 총 계	16,009,996,893	부 채 총 계	8,484,125,331
		자 본	
II. 비 유 동 자 산	8,506,594,759	I. 자 본	2,050,000,000
(1) 투 자 자 산	2,000,000	1. 보 통 주 자 본	2,050,000,000
2. 용 지	425,256,560	II. 자 본 잉 여 금	8,988,688,878
(2) 유 형 고 정 자 산	2,107,888,839	1. 처 분 전 이 회 결 손 금	8,295,549,626
1. 기 타	3,152,082,953	2. 처 분 전 이 회 결 손 금	243,837,248
2. 가 상 자 산	1,371,871,126	3. 기 타	450,000,000
3. 가 상 자 산	16,636,163	III. 자 본 조 성	4,454,400,000
4. 가 상 자 산	62,331,729	1. 자 본	4,454,400,000
5. 가 상 자 산	538,029,165	IV. 결 리 손 결 손 금	3,488,375,314
6. 가 상 자 산	621,055,864	1. 처 분 전 이 회 결 손 금	3,488,375,314
(3) 투 자 자 산	5,919,711,680	(당기순손실)	442,655,129
1. 개 발 비 용	8,001,442,788		
2. 국 고 보 통 조 성	2,084,368,735		
3. 산 업 재 산	2,637,607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49,337,700		
1. 기 타 비 유 동 자 산	49,337,700		
2. 기 타 비 유 동 자 산	430,000		
자 산 총 계	16,009,996,89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6,009,996,893

위와 같이 공표함. 2008년 3월 29일

**주식회사 오이슬루션**  
대표이사 박용관·추인구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5기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원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정욱